김수현표 가족드라마란 이런 거야

SBS '그래 그런거야'… 대가족 3대 이야기

가족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지만 김수현 작가는 가족의 가치를 더욱 크게 외친다.

60부작으로 13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TV '그래 그런거야'는 80대에 접어든 '어른'들과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초보 어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김수현 작가는 언제나 그랬듯 '막장 없는' 가족 이야기를 그린다.

이순재, 강부자, 김해숙, 노주현, 양희경 등 이른바 '김수현 사단'이 총출동해 무게 중심을 잡고 서지혜, 조한선, 신소율, 윤소이 등 젊은 배우들이 이야기를 풀어간다.

과거 한 시트콤에서 '야동순재'로 젊은 층에게까지 큰 사랑을 받았던 이순재는 이번엔 노래방을 즐기고, 걸그룹을 보며 미소짓는 낙천적인 89세의 유종철 역을 맡았다.

그는 아내 김숙자 역의 강부자, 처제 숙경(양희경), 세 아들 민호(노주현), 경호(송승환), 재호(홍요섭)와 그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이순재는 "왜 이렇게 많은 출연자, 세대를 출연시키나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사람 사는 것 같다' '가족이란 저런거지'라는 대리 만족을 줄 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막장' 주말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대해 "막장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하며 내려본다. 그러나 드라마는 감동을 주고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드라마가 우리의 문화와 역사, 국민적 수준을 대변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자는 "편집된 영상을 보면서 작품은 너무 완벽한데 내가 너무 서툴구나하고 반성을 했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전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라고 '그래 그런거야'를 소개했다.

결혼 두 달만에 미망인이 된 뒤 시아버지 민호와 5년째 함께 사는 며느리 이지선(서지혜), 치열한 취업시장을 자발적으로 떠난 재호의 막내아들 세준(정해인)을 통해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과 생각을 조명한다. 서지혜는 제작발표회에서 "사실 두달 만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설정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시부모를 남이라고 생각하기도, 이혼을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 현실이지만 지선과 민호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다른 시각과 메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드라마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막내 며느리 한혜경(김해숙)의 내레이션과 함께 진행된다.

혜경은 매주 한번씩 온 가족이 모여 먹는 식탁을 차려내는 '특등 며느리'이지만 엄동설한에도 선풍기에 의지할 정도로 속에선 열이 치받친다. 김해숙은 인생의 중반부를 넘어서며 겪는 혜경의 복잡한 심경을 특유의 공감가는 연기로 표현한다.

'7080 팝의 여신' 올리비아 뉴튼 존 방한

5월 14~15일 서울·부산서 콘서트

"한국 콘서트에서는 저의 히트곡을 모두 선보일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무대도 몇 개 준비했죠. 콘서트는 제가 50년간 부른 노래를 따라가는 음악 여행이 될 거예요."

오는 5월 내한 콘서트를 앞둔 1970~1980년대 '팝의 여신' 올리비아 뉴튼 존(68)은 한국 팬들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뉴튼 존은 12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느낌표(!)와 긍정적인 감정표현이 가득한 답변을 보내왔다.

"매일 밤 즐겨 부르는 훌륭한 곡들을 가지게 된 것이 제게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또 모든 관객은 개성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관객이 주는 에너지는 저에게 매번 새로운 경험이 되죠. 저와 함께하는 최고의 밴드도 빼놓을 수 없어요!"

1965년 '렛 미 비 데어'(Let Me Be There)로 데뷔한 뉴튼 존은 곧이어 그래미상 베스트 여성 보컬리스트 상을 거머쥐며 바로 명성을 얻었다. '피지컬'(Physical)로는 빌보드 싱글 차트 10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뉴튼 존은 이번 내한 공연에서 자신의 대표곡 '피지컬', '매직'(Magic), '아이 어니스틀리 러브 유'(I Honestly Love You) 등 히트곡 무대를 한국 팬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딸 클로이가 태어난 때예요. 커리어 면에서 좋았던 순간은 너무나 많지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연한 게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과 운동선수 앞에서 노래한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뉴튼 존을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린 작품으로 음악영화 '그리스'(1978)를 빼놓을 수 없다. 디스코 리듬의 음악과 율동으로 구성된 이 영화에 주인공 '샌디' 역으로 출연하면서 뉴튼 존은 기존의 컨트리 가수 이미지에서 탈피해 완벽한 변신을 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 입고 나온 검은 가죽바지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뉴튼 존은 "'그리스'는 제 인생과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꼽힌다. 영화를 찍던 여름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들었고, 영화가 다음 세대인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덕에 그 친구들과 지금도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리스'는 제게 좋은 음악, 좋은 우정과 좋은 기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뉴튼 존은 1992년에는 유방암 선고를 받아 투병 생활을 했지만, 완치 후에는 호주에 암 연구·건강증진 센터를 설립하고 유방암 예방 기금 모금 운동을 하는 등 여성 건강 증진 운동가로 활동했다. 멸종 위기 돌고래 보호 메시지를 담은 노래 '더 프라미스'(The Promise)를 발표하는 등 환경 운동가로도 활동했다. 뉴튼 존은 "앞으로도 제게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음악을 녹음하고 공연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의 인생을 전망했다.

"제게 음악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제 음악과 팬들의 감정을 연결해주는 목소리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행운아죠!"

뉴튼 존의 내한 콘서트는 5월 1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5일 부산 KBS 부산홀에서 열린다. 티켓은 인터파크, 예스24티켓, 옥션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40 위기탈출 넘버원 플러스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밥상의 전설〉 55 안녕 우리말(재)	00 특집 다큐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연장전〉	00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00 닥터 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40 채널A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15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
1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우리 사는 세상(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2	30 직언직설	00 명인 50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키즈 사이언스 5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3		40 야생일기 50 바른말 고운말 55 튼튼생활체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취재파일 K(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중계방송 교섭단체 대표연설 30 안녕 자두야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사람과 사람들(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 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우리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12	40 개밥주는남자(재)	2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포스터〉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요리비전
06:10 EBS 인문학 특강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생활 보감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1
13:05 지식채널e
13:10 프레임 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4:00 탐험대
14: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캐니멀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두키 탐험대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발명이 팡팡!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남미의 보석, 볼리비아 탐험기 1부 평화의 땅, 라파스를 가다〉
21:30 한국기행 〈내 고향 남쪽바다 1부 -황금대구의 추억〉
21:50 EBS 다큐 프라임 〈교육패러다임 대기획 공부의 재구성 1부〉
22:45 달라졌어요
23: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5일(음 1월 8일 丁卯)

子 48년생 변화무쌍한 상황이니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60년생 원점으로 회귀하는 형세라고 볼 수 있다. 72년생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84년생 오랫동안 소원해 왔던 바를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2, 62

丑 49년생 구상은 좋으나 추진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다. 61년생 양자택일해야 할 길목에서 필히 갈등하게 되리라. 73년생 땅이 꺼지게 한숨 쉴 일이 생긴다. 85년생 꾸준한 진행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4, 16

寅 50년생 다 털어놓아야 할 입장에 처한다. 62년생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난감해지리라. 74년생 소화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86년생 예기치 않게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06, 44

卯 51년생 현재의 시점에서 빈틈을 보인다면 치명적이니라. 63년생 보장된 것은 아니니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75년생 세분화시켜 낱낱이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단계이다. 87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4, 79

辰 40년생 오해를 받고 있을 소지가 크니 매사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52년생 스스로 정리될 것이니 내버려 둬도 상관없다. 64년생 오판을 할 수도 있다. 76년생 행복해 하는 판세이다. 88년생 어려운 판국이니라. 행운의 숫자 : 70, 08

巳 41년생 긴급히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긴다. 53년생 따스한 행운의 햇살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65년생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77년생 판세에 맞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속출한다. 89년생 길조가 비춰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60, 27

午 42년생 적합하지 않다면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불완전하다면 백 번이고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 66년생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78년생 발언은 최소한으로 하되 경청을 많이 하라. 행운의 숫자 : 20, 81

未 43년생 일시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항심으로서 대하자. 55년생 누락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67년생 서로 진행 방향이 상반되니 인연이 박하도다. 79년생 초기에 핵심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29, 37

申 44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56년생 기쁜 소식이 메아리쳐 올 것이니라. 68년생 길상이니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펼쳐지겠다. 80년생 유동적이니 매사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9, 22

酉 45년생 투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이다. 57년생 현하에 충실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69년생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대하라. 81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에 서툴러서 애를 먹겠다. 행운의 숫자 : 13, 56

戌 46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겨왔던 바가 무너질 수 있다. 58년생 변동 사항이 생기나 차질을 주지는 못 한다. 70년생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82년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정황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88, 02

亥 47년생 귀한 것이 생겨서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59년생 전진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라. 71년생 겉과 속이 다르니 현혹되기 쉽다. 83년생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근거를 상세하게 남겨둬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1, 8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